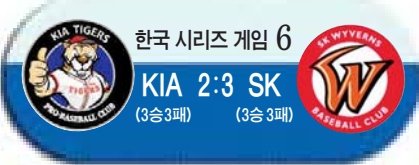


# 오늘 마지막 잠실대첩 KIA, 기필코 축배든다

마주마주프로야구포스트시즌



## 고비마다 타선 불발 막판 추격 무위 구름슨-글로벌 7차전 선발 맞대결

KIA 타이거즈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SK 와이번스에 2-3으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앞선 5번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선발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KIA 윤석민이 5이닝 7피안타(1홈런) 2사사구 4탈삼진 3실점을 하며 마운드를 내려온 것에 반해 SK 송은범은 5이닝동안 4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에 천금같은 승리를 안겨줬다.

2회말 선투타자 정상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윤석민이 6번 이호준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3회 이번에는 박재상의 2루타가 실점의 빌미가 됐다. 윤석민은 무사 2루에서 정근

우, 박정권의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더 내주었고, 점수는 0-2가 됐다.

4회까지 매회 주자가 출루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1회와 2회 이용규와 김상현이 안타를 치고 출루했지만 2개의 도루 실패가 나왔다. 3회에는 안치홍의 안타와 이현근의 희생번트로 2사 2루의 득점 기회가 왔지만 김원섭이 삼진을 당하며 이닝이 종료됐다.

4회에는 나지완의 중전안타와 상대 수비수의 송구실책으로 2사 2루가 됐다. 타석에 들어선 5번타자 김상현이 송은범의 초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큼직한 타구를 만들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투런 홈런이 되는 듯 했지만 비디오 판독결과 파울 판정이 나왔고, 이후 후속타가 불발에 그치면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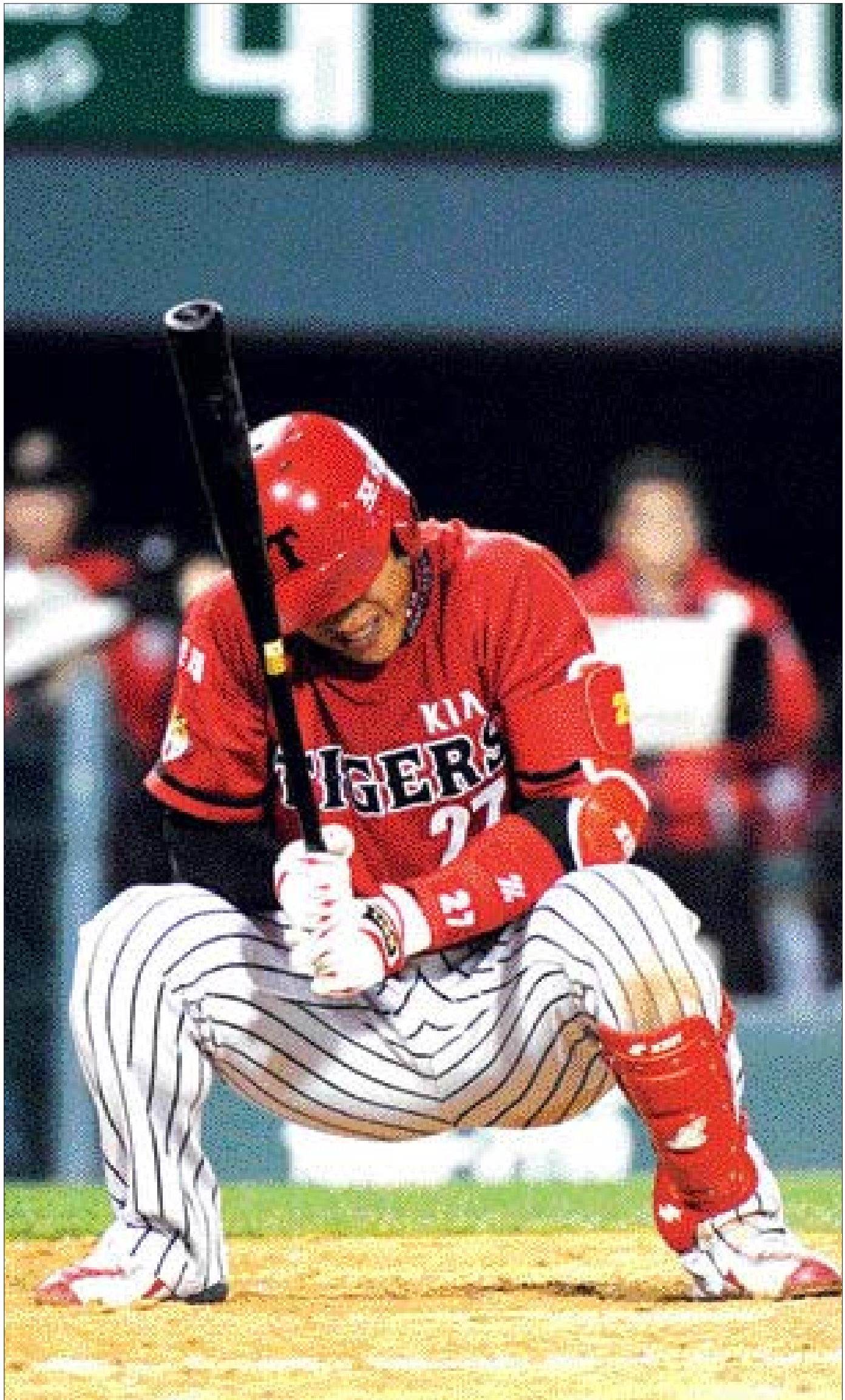
수를 뽑는데 실패했다.

좁혀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를 깨운 건 '빅초이' 최희섭이었다. 8회 이현근과 김원섭의 연속안타로 만든 1사 1·2루, 대타로 투입된 이재주가 2루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지만 나지완이 볼넷을 골라내며 베이스를 가득 채웠다.

타석에 선 최희섭은 투 스트라이크 노볼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고효준의 세 번째 공을 받아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통쾌한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며 2-3을 만들었다. 하지만 추가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SK의 승리로 끝났다.

3승3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7차전 마지막 대결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게 아닌데 23일 오후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9CJ마주마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KIA-SK의 경기 8회초 2사 1·3루의 기회에서 내야방블로 물러난 KIA 김상현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 양팀 감독 한마디

◇조범현 KIA 감독 = 1회에 이용규가 견제사 당하고 난 뒤 분위기가 아쉬웠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완봉을 당하지 않고 득점을 한 것이 내일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윤석민은 오늘 밸런스가 안 좋았는지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많았다. 공백이 길었던 탓인지 밸런스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정근우와 나지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내일 마지막 경기다. 선발 투수는 릭 구름슨이다. 하지만 모든 투수를 준비시키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계획이다.

공격도 끝까지 기대한다. 홈 유니폼을 한 경기에서는 다 이겼으니 내일 기대하

조 “이용규 무모한 도루 아쉬웠다”

김 “정신력 강한 채병용 투입 적중”

면서 온 힘을 기울이겠다.

◇김성근 SK 감독 =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했다. 내일 7차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마무리 투수로 채병용을 쓴 이유는 승부처에서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윤길현은 볼이 좋지 않다고 했고 정대현은 왼손 대타 장성호가 남아있어서 쓰기를 힘들었다.

어제 경기 도중 선수를 철수시켰는데 어제 일과 오늘은 관계없다. 긴장하지 않

고 편하게 하려고 했다.

내일 게리 글로벌이 얼마만큼 던져주느냐가 중요하다.

카도쿠라 칸도 나갈 수 있고 모든 투수가 준비한다. 실사 내일 지더라도 SK는 올해 잘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19연승도 했고 플레이오프도 2연패 뒤 3연승, 이 시리즈도 2연패 뒤 3승3패 가서 내일 결과를 그리 따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잘했다고 본다.

/연합뉴스

## 이현근 4·5차전 4안타 맹타 “미칠 줄 알았단니까요”

### ■ 한국시리즈 말... 말... 말

▲‘윤석민 이니까?’=5차전의 영웅 투수 로페즈. 23일 선발이 윤석민이기 때문에 한국시리즈가 KIA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석민의 난조로 KIA가 패배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 진출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고 밝혀 로페즈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 로페즈는 25일 미국 마이애미로 돌아간다.

▲‘정용운이 MVP죠?’=투수 양현종, SK 박정권이 후배 정용운에게 삼진을 당한 뒤 5차전에서 부진해 KIA가 승리했다며, 선배의 지원사격(?)을 받은 정용운은 한국시리즈 MVP 투표권이 있는 기자단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떡아웃 분위기를 띄웠다.

▲‘미칠 줄 알았단니까요.’=유격수 이현근. 초반 부진을 딛고 4·5차전에서 7타수 4안타(1홈런)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는 질문에, 이현근은 한국시리즈 개막전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며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손꼽혔었다.

▲‘심리학을 공부해야겠어.’=조범현 감독. 22일 경기에서 선수들의 실력도 앞섰고, 운도 따른 것 같다는 얘기에, 운이 아니라 다 선수들의 실력이었다고 농담을 한 조범현 감독, 경기전 실수해도 팀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었다면서.

▲‘그게 더 어려웠어.’=‘개구리 번트’로 5차전 승리를 이끈 이용규.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 한일전 당시 김재박 전 LG 감독의 번트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치 아웃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불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맞추겠다

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다고.

▲‘잘 부탁해.’=이번 한국시리즈에서 4개의 방망이를 부러트린 최희섭. 시즌에는 방망이가 잘 부러지지 않는데 한국시리즈에서는 전력을 다해 맞대결을 하는만큼 방망이가 잘 부러지는 것 같다며, 들고 있던 방망이를 향해서 한마디.

▲‘김현수라고요.’= 한국시리즈 현장을 찾은 두산 김현수. 경호업체 직원이 사복을 입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출입을 막아서자, 김현수는 관중석에서 한국시리즈 6차전을 관람했다.

▲‘훈련하고 왔습니다.’= 2군 차영화 감독 및 코칭 스태프. 23일 응원차 잠실구장을 찾은 코칭 스태프들은 서울 출발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정상적으로 2군 선수단 훈련을 소화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보나 더블트랩 13년만에 한국新



### 사격 113점 썩... 김덕현 멀리뛰기 5연패

사격 국가대표이자 광주주대표 이보나(28·우리은행)가 더블트랩에서 13년 동안 깨지지 않던 한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한국육상 멀리뛰기의 주역 김덕현(광주시청)이 전국체전 5연패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보나는 23일 충북 청원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사격 여자 일반부 더블트랩 본선에서 113점을 썩 한국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6년 5월 회장기대회 당시 해화여고 3학년이던 손혜경(33.KB국민은행)이 세운 종전 기록(111점)을 무려 13년5개월 만에 깨뜨렸다.

김덕현은 이날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일반부 멀리뛰기에서 7m89를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대해 김덕현은 지난 20일 세단뛰기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또한 5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멀리뛰기의 정상을 지키게 되었다.

이날 김덕현의 금 추가로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 3개·은 2개·동 3개의 선전을 펼쳤다.

▲광주=사격장에서 이보나의 한국신 소식에 이어 장하나(오코하우징)가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502점을 기록하며 금빛 총성을 울렸다. 조정 남자일반부에선 김휘관(한국체대·싱글스킬)이 1위로 끝냈다.

이윤주·김찬미·장하나·이다면(이상 광주선발)이 출전한 공기소총 단체전에선 1천 186점으로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육상 1천600m 계주에선 한겨레·이형우·김대민·오아람이 출전한 조선대가 3위로 끝났다. 태권도과 레슬링에선 각각 동메달 3개씩을 추가했다. 수영에선 이지선(전남대)이 여자일반부 100m, 스키에선 이지선(동일정보고)이 개인전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전남=광양시청 불링팀이 연일 금빛스

트라이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최복음·신승현·김영훈이 출전한 남자일반부 3인조전에선 2천62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광양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일반부 개인전·2인조전에 이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레슬링에선 2004 아테네올림픽 레슬링 챔피언 정지현(26·전남)이 금메달을 따냈다. 정지현은 대전대학교백센터에서 열린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윤영진(경기)을 2-0으로 제압했다. 정지현은 “체중 부담이 크지 않아 몸이 가볍게 움직였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평소 체중조절에 더 신경을 써서 60kg급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육상에선 이두행(해남군청)이 남자일반부 1만m에서 31분08초47로 우승, 5천m에 이어 대회 2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수영 정다래(부영여고)는 여고부 평영 200m에서 2분25초74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빛영을 펼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